

### 불자 세상보기

## “2초도 느리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신도시 후보지로 제시한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군에 전·현직 정치인, 주요 재계인사, 고위 관료들이 수십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렴해야 할 정재계 고위층들이 기득권을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것은 말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투기와 관련한 경정말씀을 살펴본다.



#### 땅투기

### 법답지 않은 이익 결국 업보

■남으로부터 과분한 이익을 받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이 허물어지게 된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사된 이익을 탐하는 일에 빠지지 말라. 저 사리라 비구는 선정을 닦아 재석전에 태어났었지만 사된 이익에 빠져 갑자기 신통력이 사라지고 백정 같은 사람으로 타락하였다.

(중일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아야 한다. 법답게 재물을 구하고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한다.

(중일아함경)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저울을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면 큰 죄가 된다.

(우바새계경)

■복을 닦기 위해 재산을 모으고 장사를 하면서도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일은 비록 성취하게 되지만 거기서 생긴 이익은 법을 지키면서 발생한 손해만 못하게 된다. 게다가 미래의 세상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과의 업보를 받게 된다.

(백유경)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은 재물이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리고 욕함을 알고 절약하며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은 많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북유경)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서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몫을 따르지 않는다.

(중일아함경)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배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집아함경)

■누구든지 자신이 벌어들인 것이라 해도 모두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대중들이 이 세상에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잠시동안 자신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아셈회의 기간 중 승용차 출납수 운행으로 운전자들은 오랜만에 서울 시내를 계속도 내면서 달려볼 수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승용차가 그 하루를 달리지 못했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이 때문에 '앞으로도 출납수 운행을 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서울시내는 지금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교통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이야기 하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로 길이 확박 막히는 서울거리가 성급한 요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참을성을 길러주기도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에 한 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엔 2초도 느리다'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곧바로 화면이 뜰라지 2초, 아니 1초라도 화면이 머뭇거리면 '요즘 아이들'

#### 인간성의 성숙

#### 긴 호흡 과정 필요

은 지겨워한다는 것이다. 어느 인터넷통신회사의 광고문안이지만 현대 사회를 이처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카피도 드물다 싶다.

과학은 그동안 사람들의 편리함과 속도감을 충족시키는 데 봉사해 왔는데,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참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죄스러운 일이나 한 것처럼, 과학의 이같은 봉사 덕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살고 있는가. TV의 리모콘 버튼 하나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앞서 사들일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만 걸렸던 국제우편 역시 E-메일 하나로 즉시 처리된다. 과학은 그런 마을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참고 기다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 어쩌면 옛사람들이 꿈으로만 꾸어왔던 이상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류의 앞날은 만사 O.K일까.

인간의 삶에는 인간성의 성숙, 마음의 성숙이란 보다 긴 호흡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컴퓨터 키 하나 눌러서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며, 편리함과 속도감에도 무관하다. TV나 컴퓨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도 우리에게 지적 자극은 필지언정 인간성의 성숙이나 인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남을 이해하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이해

#### '참고 기다리는 힘'

#### 미래사회의 희망

하고 이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바탕은 인간성의 성숙일 수밖에 없다.

인간성은 어쩌면 '참고 기다리는 힘'에 의해 성숙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삶이라면 그 기다림에는 언제나 참용성이 요구된다.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속도감을 만족시켜주면서 대신 그 '참고 기다리는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과학이 우리를 참고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냉정한 눈으로 이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의 근원에는 '참고 기다리는 힘'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불교가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비교적 호흡이 긴 그 가르침 때문일 것이다. 불교수행의 하나인 참성은 그야말로 길고도 긴 기다림과 절박과도 같은 참용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2초도 느리다'는 조급함을 다스리기에는 부처님 가르침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 열·린·마·당

강원 교과목의 한글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두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이 한문경전의 홀이위주로 짜여 있으며, 교수법 또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과, 해박한 한문이해를 통해 경전을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

### 강원교과목 '한글화'

아볼 수 없는 강원만의 고유가치도 지적재산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이 24일 조계사 중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강원 교과목 및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관계자 연찬회에서 제기된 교재의 한글화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본다.

#### "한문위주 교육 현실적 애로"

능허스님(범어사 강사)



현재의 강원교육은 주로 한문원전 강본을 가지고 경·울·론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고 교재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 경전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강원인 한문교육을 하는 곳인지 승려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불교교육기관인지 개념이 모호할 정도다. 강원 교육이념이 한문교육을 하는 곳이 아닐진대 이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다.

설사 한문의 뜻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해당 교재가 제시하는 대의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부인할 수 없다.

한자라는 장막에 덮여 불교의 대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확인으로서 전문성 확보는 한문을 탐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함을 아는 데 있다.

또 일부에서 한문경전교육을 통해 건강 및 독경수행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서 한문교재를 읽고 탐구하는 것은 수행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방법은 유교의 서당식 교육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서도 불교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대안으로 한문경전교육은 학원이나 올원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한문을 중심으로 한 강원교육이 시간적으로나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매우 버겁기 때문에 현대식 교육을 병행하여 교과를 보충하고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전 간경 자체가 마음공부"

월호스님(쌍계사 강사)



강원의 교과과정은 잡다한 지식을 골고루 익히는 것보다 균형잡힌 인성을 닦을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강원의 한문 경전 학습은 충분한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한문경전을 하루종일 외우다시피 익힘으로써 마음이 잡다한 관심사에서 벗어나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은, 열심히 공부해본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옛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지은이, 그리고 주석을 달아 풀이해 주는 이들과의 사상적 만남이다. 만남은 직접적인 것일수록 좋다. 한문원전의 간경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마음공부가 될 뿐 아니라, 의미를 탐구해서 마음에 반조한다면 최상의 수행법이 된다.

대표적인 한문경전들을 익혀나감으로써 다른 유사경전들을 독과 내지는 최소한 부분적 인용이라도 할 수 있는 독해력을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심지어 일반대학에서도 급급한 원서로 강독하도록 하는 까닭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원에서 될 수 있는 한 한문원전을 강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치문 원각경 기신문 주석 등 강원의 교과목이 조선시대 이후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 정립됐다. 더욱이 근래에는 원토 및 번역본 책들이 많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통교과목을 한문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논강이라든가 간경 등과 같은 훌륭한 전통식 학습방법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0년 묵은 '한글화' 숙제

#### 필요성 계속 거론...번번이 무산

강원교과목 한글화는 조계종이 포교 교육 역경 등 종단 3대 지표를 설정하며 30년 전부터 줄기차게 매달려온 사안이다. 그 동안 예비들에게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고취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불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차례 강원교과 한글화 문제가 종단차원에서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주된 이유는 해박한 한문해독능력을 통한 출가자의 전문성 확보와 출가자로서 위의를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교직자스님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

반면 한글화 주장은 강원 교과과정이 조선시대 확립된 교과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글세대에게 한문 교재로 학습하는 것은 시간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강원 교원의 한문경전교육은 뜻풀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4년간 편성돼 있는 교과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현대적인 교과를 교육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올해에 강원교과 통일과 교과목 개선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8월 전국 강원 교직자 스님과 학인들을 대상으로 교재의 한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재의 한글화에 대한 의견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문사용 주장이 강한 강원 교직자스님 30명의 경우 한문 교재를 고수하는 스님이 15명인 반면 완전 한글화 3명, 국한문 혼용사용 10명, 무응답 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문사용을 주장하는 교직자 스님이 15명으로 반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의견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교직자출신 스님 12명중 2명의 스님만이 한문 전용을 고수했으며, 한문과 한글을 절충하는 의견이 10명이나 됐다.

학인들의 경우도 강원교재의 한글화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394명, 공감하지 않는다는 스님이 279명으로 한글화에 공감하는 스님의 비중이 높았다. 한글화에 공감하는 학인 스님들은 또 한글과 한문을 50:50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에 114명, 70:30으로 사용 107명, 80:20이 97명, 30:70이 74명으로 응답해 국한문을 절충하더라도 한글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원우 기자

# 암 이길 수 있다!

## 전국 암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주 (민속한의원)의 암 치료법!

###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 실제로 암환자들에게 처방하는 16가지 종합요법!

유향약오리를 이용한 약물요법 · 항암약자 요법 · 숙독요법 ·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난반요법 · 녹즙요법 · 술임 담내기 요법 · 숙량목욕 요법 · 호도유 요법 · 수매과 건강 · 발 주무르기 · 향문 조이기 · 기공 · 단전호흡



박천수(민속한의원장·한의사) · 김인택(민속한의원 한약사)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값9,000원

###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관절염 · 신경통 · 산후통 · 견비통  
허리디스크 · 통풍 · 루푸스치료법

한방약물요법 · 숙독요법 ·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 · 약차요법 · 숙독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녹즙요법 · 술임 명내기 요법 · 적절한 운동 · 발 주무르기 · 향문 조이기 · 단전호흡



박천수(민속한의원장·한의사) · 김인택(민속한의원 한약사)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값8,000원

### 전주 민속한의원

은 산에서 채취한 약초의 유효 약오리를 이용한 한방치료, 항암약자, 한자에 맞춘 숙독, 체질에 적절한 식이요법, 난반요법, 기공요법 등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각종 암과 난치병으로 고생해온 환자들을 선인들의 지혜와 의뢰인의 노력으로 치료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한의원입니다. 넓은 대지에 본관을 비롯, 생약 연구실, 명제실, 약재 창고 등 건물 4개동과, 유향오리 사무장, 약초 재배단지 등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정반 좋은 위치에 황토를 이용하여 입원,요양 시설을 신축중입니다. 전화 063-222-0133

## 컬러만화로 보는 허준의 처방동의보감

### 건강진단에서 한방 처방전까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 원전에 충실한 해설, 한 눈에 쏘옥 들어오는 컬러그림!
-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맥과 활기 편 | 2권: 장부의 위기 편  
글·그림 이정민 | 김수 하태현(한의학 박사) | 각권 8,500원 | 전2권

한집에 한권씩!